

특집

□ 低油價時代 □

油價戰爭과 OPEC의 속사정

宋 駿 英

〈韓國石油開發公社 企調部〉

I. 머리말

年初부터 약세를 보여오던 國際原油價格은 지난 1月 22日 英國의 Brent油가 처음으로 배럴당 20달러를 돌파한 이후 中東產原油들도 뒤따라 같은 폭의 下落勢를 보여 3월초 현재 거의 모든 油種이 작년말보다 약 10달러나 떨어진 시세를 보이고 있다. 소위 油價戰爭이 본격화 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예측하는데는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石油需給問題를 중심으로 均衡市場理論에 의해 분석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國際石油市場의 구조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稿는 그 동안 OPEC을 중심으로 전개되온 OPEC과 非OPEC 石油輸出國, 또는 OPEC 내부의 갈등과 각축양상을 중심으로 한 상황분석에 국한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II. 油價戰爭의 展開樣相

연초부터 약세를 보여오던 Brent油가 1月 25日을 전후하여 25달러 線으로 내려가더니 20달러 선을 돌파한 것이 1月 22日, 이같은 폭락사태에 불을 붙인 것은 역시 사우디였다.

야마니 사우디 石油相은 1월 21일 OPECNA (OPEC 通信)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회견에서 야마니는 OPEC이 지난 76次總會 (76. 12. 7)에서 이미 市場세어回復政策路線을 택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OPEC과 非OPEC 產油國이 산유량 감축을 위한 어떤 협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國際油價는 세계경제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배럴당 15달러선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다시 말해 油價戰爭이 선언된 것이다. 그는 이어 國際石油市場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협정에는 英國·노르웨이 등 北海산유국 뿐만 아니라 멕시코·이집트·말레이시아·오만 등 석유수출국 모두가 참가해야 하며, 이같은 방법을 통한 根源的 문제해결은 산유국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및 국제무역분야에서의 난국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계경제를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사우디의 결의를 강조하였다.

이같은 야마니의 발언은 석유선물시장과 현물시

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Brent油가 하루 사이에 20달러선을 넘어 18달러로 폭락하게 된 것이다. 기자회견이 있기 전인 1月 20日까지만 해도 油價는 20달러를 다소 웃돌고 있었으며, 일부 石油전문가들이 큰 幅의 油價下落을 전망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리 市況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해도 20달러의 벽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現況이었다. 따라서 \$ 20/bbl은 心理的으로 큰 의미를 갖는 油價의 下限線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며, 이 하한선의 붕괴는 산유국·소비국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충격은 OPEC 「5人特別委員會」 개최를 계기로 다시 한번 加速化된다.

이 위원회는 76차 총회에서 「國際石油市場에서의 OPEC의 공정한 市場세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강구」를 목적으로 신설된 특별위원회로서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이라크, UAE, 인도네시아 등 5개 회원국 석유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2月 3·4兩日間 비엔나에서 개최된 이 위원회는 公式合意事項으로서 「OPEC의 생산쿼터는 최소한 1600萬b/d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극히 미지근한 결의사항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회의에 참석한 일부 회원국 석유상들의 場外發言內容은 강경하고 단호한 것이었다. 특히 OPEC에서 사우디와 路線을 같이 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칼리파 쿠웨이트 석유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 좋은 싫든 油價戰爭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OPEC으로서서는 이제 油價戰爭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

• 非OPEC石油수출국, 특히 英國 등 北海산유국이 생산량 감축에 협조하지 않는 한 油價는 \$10/bbl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잘라 말함으로써 油價戰爭이 더욱 深化될 것을 示하였다.

이같은 발언내용이 바로 「5人特別委員會」의 합의된 결의사항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油價戰爭에 임하는 OPEC의 공식적 입장선언은 더우기 아니다. 특히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던 2月 4日 이란, 리비아, 알제리 등 강경회교3개국 석유상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별도의 회합을 갖고 油價회복을 위한 OPEC의 생산량감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을 보면 OPEC 전체 회원국이 이 油價戰爭을 内心으로 부터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과잉공급 상황에서는 설령 일부 회원국이 반대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우디·블록 국가들의 정책노선을 거슬러 폭락시황의 大勢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Ⅲ. 油價戰爭의 배경

1. OPEC과 非OPEC의 각축

지난 연말 제네바에서 열렸던 第76次 OPEC總會는 공동성명을 통해 과거의 油價防禦戰略에서 市場세어防禦戰略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였다. 市場세어防禦라 함은 두말할 필요없이 非OPEC石油輸出國들과의 시장쟁탈전을 의미한다. 非OPEC石油 가운데 특히 OPEC를 민감하게 하는 것이 北海產原油이다. 현재 非OPEC石油수출국은 北海產油國 이외에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집트, 소련, 中共 등을 들수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OPEC정책에 비교적 협조적이거나 또는 物量面에서 독자적으로 시황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OPEC의 주요 경제대상은 英國과 노르웨이이다. 北海油田의 생산량은 350萬b/d 수준, 수출물량은 200萬b/d를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現物去來 되거나 現物市場連動價格으로 거래됨으로써 OPEC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바로 公式價格販賣制度를 위협하는 원흉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지난 84년 말 油價下落事態였다. 당시 英國과 노르웨이는 公式價販賣制度를 포기하고 現物油價 連動方式를 채택하였다. 이같은 결정은 현실적으로 배럴당 약 2-3달러 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같이 北海油種이 인화되자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OPEC會員國인 나이지리아였다. 地理的으로 大西洋에 면해 있고 또 生産油種도 北海產과 유사한 輕質油를 생산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로서는 어차피 北海油種과 경쟁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남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나이지리아는 결국 自國產 Bonny

Light를 OPEC 공식價格에서 2-3 달러 할인판 매하는 변칙판매행위를 자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 OPEC에 대해서는 재정손실을 내세워 쿼터 증대를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OPEC를 탈퇴하겠다고까지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北海産原油는 現物市場을 통한 가격영향력은 물론, 나아가 OPEC의 판매정책, OPEC의 결속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다. 이에 따라 OPEC側은 한때 非OPEC 石油輸出國에 대한 순방외교를 전개하면서 아마니 석유상이 회유를 위해 英國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英國의 냉담한 반응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市況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에 中東産油國들은 油價戰爭만이 北海산유국의 굴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공산이 크다. 北海油田의 경우 전체 油田의 약 90%가 배럴당 10-15달러의 생산 코스트가 먹히고 있다. 이에 비해 배럴당 2 달러 이하의 中東국가들이 油價를 파격적으로 인하시키는 경우 北海산유국들은 치명적 타격을 받고 끝내는 OPEC 市場政策에 협조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OPEC의 계산인 것이다.

2. OPEC의 内部的 갈등

그러나 OPEC가 非OPEC 石油輸出國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의 입장만은 아니다. OPEC로서도 自求의으로 對應해 나갈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다만 自中之亂에 의해 스스로 기회를 일실했다고 비난받을 여지도 크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생산쿼터와 공식가격체제 違約行爲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OPEC회원국 중에서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사우디, 쿠웨이트 등 페르시아灣岸 수개국에 불과할 뿐 나머지 국가들은 막대한 외채에 허덕이고 있거나 過慾의인 경제개발 계획 때문에 커다란 財政需要를 보이고 있다. 또 이들 국가들의 收入이 전적으로 석유에 의존하는 Mono cultural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무리 총회 결정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일에 강제성을 띠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이란, 알제리, 리비아 등 강경회교국 또는 좌경회교국이 있어 이들

의 정치적 동기가 때로는 OPEC의 규율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 사우디로서는 Swing Producer로서 역할해 오면서 OPEC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市況이 점차 악화되면서 이같은 외로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새로운 제도적장치를 모색하게 된다. 이것이 72次 OPEC總會에서 合意된「새로운 監視制度」의 도입이었다. 이 제도는 한때 구체적 감시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를 거두는 듯 보였으나, 끝내는 違約國에 대한 처벌조항의 미흡 등 국제기구가 갖는 실천상의 한계성 때문에 85년 2/4분기에 들어서면서는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이 제도는 기존 유가체제를 유지하면서 市況을 회복시켜 보려는 사우디의 마지막 카드였는지도 모르며 이 제도가 실패하면서 油價戰爭은 이미 그 불씨를 안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가 네트백기준에 의한 할인판매를 선언하고 나서고 소위 국제석유소식통들이 油價戰爭 발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기 시작한 것이 85년 9월, 감시제도가 한계를 들어내고 회원국의 違約行爲가 극에 달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같은 추측은 더욱 신빙성을 갖게 한다. 결국 OPEC은 油價 회복을 위한 自求의수단 강구에 스스로 실패하였고 이에 따른 OPEC의 와해야 말로 오늘날 사태가 油價戰爭에 까지 이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IV. 油價戰爭에 임하는 사우디의 低意

이번 가격전쟁이 OPEC회원국 전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란, 리비아, 알제리아 등 회교강경국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며 그밖의 회원국들도 財政的 現實로 보아 현재와 같은 低油價시대를 오래 견뎌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油價가 배럴당 20달러 이하에서 당분간 머무는 경우 가봉이나 에콰도르와 같은 국가들은 즉각 제정파탄의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며 15달러 이하로 내려갈 경우 사우디, 쿠웨이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회원국이 머지않아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유가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親사우디 불력 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이 油價戰爭을 통해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OPEC 内部를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非OPEC산유국에 대한 것이다.

먼저 OPEC쪽 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어느 시점에 OPEC이 非OPEC產油國과 대화를 갖게 되는 경우 이에 앞서 OPEC은 확고한 자체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가지고 있지 못하면 회담성립 자체도 불투명해진다. 실령 非OPEC과 생산량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OPEC 内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준수되지 않는다면 非OPEC에 대해서도 합의이행을 강제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OPEC 내부상황은 그리 여의치 않다.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쿼터 증대요인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통솔력에 의한 통제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처리과정에서 자칫 조직 자체에 치명적인 상처가 생길 가능성 조차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우디로서는 어차피 공식유가 체제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고 Swing Producer로서 약세 유가의 부담을 남보다 크게 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價格戰爭이라는 극한적 과정을 통해 非OPEC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협조적인 회원국에까지도 자신의 결의와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써 안팎으로 협상위치를 강화하지는 뜻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페르샤만 연안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석유수출기구 창설 문제가 매스컴을 장식한 것이나, GCC의 軍事·經濟共同體로의 발전 모색 등이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사우디의 背水陣일 것이다.

다음 非OPEC과의 관계이다. 최근 매스컴들은 北海산유국이 100万b/d 정도의 產油量을 감축하고 OPEC가 1700万b/d 정도를 생산할 수 있으면 사태는 어느 정도 수습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정도의 타협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우선 숨통은 트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만을 바라보고 가격전쟁의 값비싼 모험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측의 매우 흥미있는 반응이 나타났다. 2月 13日 사우디 公報相은 Platt's Oilgram News와의 회견에서 國際油價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原油, 石油

製品, 石油化學製品과 先進工業國의 工產品, 서비스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세계의 모든 산유국과 선진공업국이 이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1월 20일 모든 산유국의 참여를 촉구한 야마니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 日本을 방문중이던 야마니 석유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先進 7개국 頂上會談에서 油價 및 產油量問題에 합의하는 경우 OPEC 6月 定期總會를 앞당겨 개최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現事態를 사우디와 英國의 대결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재의 사태가 몇몇 산유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범세계적인 관심속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인 동시에 이같은 노력이 윤곽을 보이지 않는 한 6月 이전에 사태가 호전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사우디는 이번 사태가 북해 산유국과의 쌍무적조정만으로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이것은 사안의 성격상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사우디는 현재와 같은 유가인하 압력을 계속 함으로써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非OPEC산유국 그리고 선진공업국의 주의를 환기시켜 세계경제 구조적 해결책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하는 포괄적 해결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마니 석유상은 日本 기자회견에서 「3月の OPEC임시총회가 끝나면 비OPEC산유국과의 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一見 큰 성의표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긴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할 뿐이다.

V. 油價전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요즈음의 관심은 油價가 과연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관해 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는 2月 중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의 석유수급동향에 대해 몇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첫째 OPEC가 1700万b/d로 증산하고 非OPEC가 100万b/d 감축하는 상황.

둘째, OPEC가 시장방어를 포기하고 1550万b/d까지 생산감축하는 상황

세계 非OPEC가 감소하지 않은채 OPEC는 1800萬b/d로 증산하는 상황.

여기에 다시 5 단계의 원유가격을 설정하고 1986年 OPEC과 사우디의 產油收入 增減額을 별도로 計算해 본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① OPEC가 스스로 減產政策을 택해 油價를 \$30/bbl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OPEC 전체와 사우디가 모두 產油收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OPEC 内部的인 쿼터 분배에 큰 어려움이 있어 現實性이 없다.

② OPEC와 非OPEC가 정면 대결하는 시나리오 油價는 \$15/bbl 이하로 폭락하며 OPEC 전체는 물론 사우디도 石油收入이 감소 甘耐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타협을 모색하게 된다.

③ OPEC · 非OPEC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油價는 \$20-23/bbl로 定着하게 된다.

이 報告書는 또 \$20-23/bbl의 가격이 적절하다는 理由로서 ① OPEC 전체로서는 수입이 다소

시나리오別 OPEC · 사우디 石油收入增減額 (85年比, 單位: 억불)

OPEC原油 平均輸出價		OPEC減產 시나리오	非OPEC과 의 調整 시나리오	OPEC-非 OPEC對決 시나리오
\$ 30	OPEC計 사우디	+ 123 + 24	+ 297 + 184	+ 410 + 191
\$ 25	OPEC計 사우디	- 112 - 26	+ 33 + 107	+ 129 + 113
\$22-23	OPEC計 사우디	- 230 - 51	- 100 + 69	- 14 + 74
\$ 20	OPEC計 사우디	- 348 - 76	- 232 + 30	- 155 + 34
\$ 15	OPEC計 사우디	- 583 - 126	- 496 - 46	- 438 - 43

감소할지 모르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最善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② 사우디의 收入이 다소 증가하게 되고 ③ 北海油田의 개발 코스트를 기준으로 보아도 합당한 수준이고, ④ 대체에너지와의 가격 경쟁도 해볼만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와도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상황요소들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단언적 豫測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油價戰爭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형태로 정착하느냐는 것도 큰 변수라고 할 것이다.

칼리와 쿠웨이트 석유상은 油價가 \$10/bbl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公言하고 있는 가운데 OPEC 會員國인 리비아, 알제리, 나이지리아, 가봉 등 아프리카 4 개국은 소위 「아프리카 산유국 연맹」을 창설하여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고 있어 OPEC의 앞날을 쉽게 점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란·이라크戰爭은 아직도 불붙고 있으며 불안정한 中東정세는 상처받기 쉬운 석유시장을 멀리서 위협하고 있다.

일부 강경국은 아직도 생산중지 등의 극적인 방법을 통해 油價反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쟁, 테러행위 등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다만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의 산유국과 주요 소비국들이 이미 두차례 걸쳐 경험한 오일·쇼크의 과정에서 油價의 폭등이 어느날 유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느 한편의 희생 위해 다른 한편의 일방적인 번영이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터득하고 있어, 더불어 국제석유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고 이것이 모두의 最善策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

企業人은 좋은 製品,

소비자는 바로 消費